

## O-21 불임인 자궁내막증 환자의 수술적 복강경 수술 후 임신율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

서영석 · 최영민 · 구승엽 · 서창석 · 김석현 · 김정구 · 문신용 · 이진용

**목 적:** 자궁내막증 외에는 다른 불임의 원인이 없는 환자군에서 보존적 복강경 수술에 의한 자궁내막증의 치료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연구 방법:**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불임을 주소로 내원하여 보존적 복강경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조직 생검 및 수술 소견상 자궁내막증이 확진되고, 자궁내막증 이외에 다른 불임의 원인이 없으며, 수술 후 1년간 자연 임신율 시도한 환자 중 임신된 환자군의 비율을 구하고 미국 불임학회 분류 (Revised American Fertility Society classification: rAFS classification)에 의한 자궁내막증 병기 및 다양한 자궁내막증 병변에 따른 임신율을 비교하였다.

**결 과:** 1991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보존적 복강경 수술 후 1년간 자연 임신율 시도한 환자 중에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는 33명이었다. 이 중에서 16명이 임신되어 48.5%의 임신율을 보였다. 3개월 이내에 임신된 환자는 12명으로 임신군의 75%를 차지하였다. 자궁내막증 병기가 I 또는 II기인 환자군 중에서의 임신율은 50%였고, III 또는 IV기에서의 임신율은 47.4%였다. 자궁내막증 병기나 각각의 자궁내막증 병변에 따른 임신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**결 론:**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불임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복강경 수술의 유용성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임신이 보존적 복강경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.

## O-22 보조생식술 (ART)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자궁근종이 임신율 및 착상율에 미치는 영향

포천중문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, 체외수정연구실<sup>1</sup>

박원식 · 정미경<sup>1</sup> · 윤내영 · 남윤성 · 박 찬 · 이우식 · 최동희  
곽인평 · 이숙환 · 한세열 · 윤태기 · 이정노

**목 적:** 본 연구는 장막하근종, 근육층내의 근종, 또는 점막하 근종 등의 출현이 보조생식술 후 임신율과 착상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시행되었다.

**연구 방법:**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 본원에서 보조생식술 (ART)를 시행받은 불임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근종이 진단된 환자들의 278예와 근종이 없는 환자들 1180예를 비교하였다.

**결 과:** 대조군에 비하여 근종군에서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게 되었고, 따라서 연령별로 임신율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령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(24~46세), 이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근종군들과 비근종군을 각각 비교하였다. 그 결과 동일 연령군에서 근종군들과 대조군, 그리고 근종의 그룹별 임신율과 착상율의 비교에서도 서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.

**결 론:** 본 연구에서 근종군과 비근종군 두군간의 임신율과 착상율의 차이가 없음은, 최